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9. 3.(화) 11:00,
(지면) 2024. 9. 4.(수) 조간

배포 2024. 9. 3.(화) 06:00

2024년도 해수욕장 운영 종료

- 이용객 총 4,110만명(8.31 기준, 전년 대비 약 8.2% 증가), 해운대·대천·광안리 순으로 방문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올해 개장한 263개*의 해수욕장이 8월 31일(목)자로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. 올해는 개장기간(6월 1일~8월31일) 동안 4,110만 명(8월 31일 기준)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등 이용객이 작년보다 약 8.2% 증가*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.

* 총 개장 266개소 중 인천 소재 3개소(왕산, 을왕리, 하나개)는 9.8일까지 운영

** 이른 더위로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이 많았으며, 개장기간 내 평년보다 더운 날씨 등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

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 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점검회의*와 함께, 해수욕장 개장 전후로 권역별 주요 해수욕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각종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,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였다.

* 알박기 물품 제거, 안전관리요원 적정 배치, 해파리·상어 방지막 등 설치 권고

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방문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들이 가을, 겨울에도 해수욕장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행사·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올여름 무사히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.”라며, “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국민들이 우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최재환 (044-200-5250)
	해양레저관광과	담당자	사무관	이윤혜 (044-200-5253)